

특 지 집

제주사회의 미래 : 변화하는 산업과 사회

유영봉	지역산업구조의 성격과 변화
김혜연	여성의 경제활동
고호성	지방자치제도
정대연	환경문제와 관리
양영철	제주형 사회복지
이상철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전망

지역산업구조의 성격과 변화

유 영 복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사회

한 국가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발전(Development)은 대개 국가내부의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사회전반에 대해 유발적 변화(誘發的 變化 : Induced Change)를 촉진시키게 된다. 흔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산업사회라 불리워지고 있고, 우리의 의도여하에 무관하게 산업사회의 성질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의해 강도 높은 변동을 경험해 왔다.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와 정치구도의 변화속에서 한국사회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과정으로서, 일찍이 C. Clark는 산업구조의 중심이 경제성장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이동하고 더욱 고도화되면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되며, 2차산업의 내부가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C. Clark의 고전적 산업구분은 현재에도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손쉽게 이용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치로 선명하게 판명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변화과정을 간편하게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복합적인 변

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변화의 성격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21세기를 수년 앞으로 한 현시점에서,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변화과정과 그 특질을 객관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속에서 제주지역의 미래사회가 향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제주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주지역경제의 산업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분류의 투명성을 유지한 지역경제구조를 검토해 본다. 또 제주지역의 산업특화성향을 검토해 봄으로서 향후 제주지역 산업의 구조변화를 전제로 한 제주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2.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성

(1) 산업구조와 산업분류

제주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우선 산업구조와 산업분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제주지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분류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의미를 명료히 하고, 또한 제주지역에서 상용되고 있는 3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불일치성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역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왜곡요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는 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산업의 구성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각 산업별 총생산물의 가치, 그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 그들이 취득한 총소득, 사용자본총량 등을 사용하여 그 구성상태를 파악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분하고 있는 산업의 대분류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9개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 분류를 기초로한 보편화된 산업분류 형태로는 농림어업을 1차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2차산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산업을 3차산업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1차와 2차산업의 내용구성은 비교적 동질적이라 할 수 있으나, 3차산업에는 전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산업과 서비스산업이 포함되므로 이를 선명히 하기 위해 SOC 및 서비스산업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렇게 분류된 3차산업을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구조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왜곡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투명성 역시 지역내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관광관련산업이며, 이는 산업분류상에 분류된 대분류 또는 중소분류 부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전체산업을 1차, 2차, 3차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어느 부문이 관광관련 산업부문이라고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논리로 산업을 구분한다면 농업관련 자재인 비료, 농약, 기계생산업과 가공산업 등의 제조업도 농업관련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어, 산업분류의 범주에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지역내에서 산업을 분류할 경우 사용되는 “3차산업=관광산업”의 등식은 제주지역 경제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변천과정

이제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어떠한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국전체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파악해 보도록 하자.

〈표 1〉 산업별 취업자 구조 : 전국, 제주도 (1961~1994)

	전 국				제 주 도			
	전산업 취업자수 (천 명)	산업별 구성비 : %			전산업 취업자수 (천 명)	산업별 구성비 : %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1961	7,563	63.0	8.7	28.3	140	86.5	0.8	12.7
1971	9,946	48.2	14.2	37.6	159	81.4	3.0	15.6
1981	14,023	34.2	21.3	44.5	187	71.8	3.1	25.1
1991	18,576	16.7	26.9	56.4	243	37.5	4.1	58.4
1994	19,837	13.6	23.9	62.5	254	31.9	5.5	62.6

주) 1961년 전국 취업자는 1963년치

자료)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분석”, 한국은행제주지점, 1992
 “1995년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1995

〈표 1〉은 전국과 제주의 산업별 취업자수와 그 구성비를 1961년부터 최근까지 나타낸 것이다. 한국경제는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출발로 1970년대중반이후 고도성장을 달성해 오며 꾸준한 고성장을 이루워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속에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변화를 경험해 왔다. 즉 1960년대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약 60%정도를 차지하여 한국의 중심산업이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점점 축소되어 1994년에는 13.6%에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광공업분야의 2차산업과 그 밖의 3차산업 부문은 그 상대적 비중을 확대시켜 1994년에는 각각 23.9%, 62.5%를 차지하는 규모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역시 선명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속에서 구조전환기(일반적으로 1970년대 중반을 칭함.)를 이미 지난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제주지역 총취업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부문이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농림어업부문은 약 30%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광공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 부문은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확대를 보이지 못한 채 전체의 약 5%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3차산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여 제주와 전국평균의 비중은 최근 동일한 수준인 62%까지 증가하였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평균의 SOC 및 서비스업의 종사자 구성비 비중증가와는 그 내용면에서 상이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제주지역의 취업자구조가 한국전체의 구조와 다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조업부문의 열악성에 기인한 광공업 비중의 저위성 및 고정성과 농림어업 비중의 상대적 비대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취업구조에 의한 산업별 구조변화를 각 산업별 취업자수의 연평균 변화율에서 살펴보면, 1차산업인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1970년대 중반이후 전국평균의 변화추세와 흡사한 지속적 감소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율에 있어서는 전국의 그것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제주지역 농림어업종사자가 타산업부문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둔감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이후 감소율은 전국평균보다 1%포인트가 높은 연평균 3.1%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어 근년의 급속한 감소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반면 3차산업(SOC 및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국의 평균변화율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제주의 SOC 및 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체의 경우 197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의 전환이 뚜렷해져 농림어업 종사자가 제조업분야로 흡수되는 현상이 현저해졌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조업부문으로의 흡수는 전국의 그것과 양상을 달리하여, 감소하는 농업인구는 3차산업 부문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제주지역의 3차산업 종사자 증가추세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그 이전과는 달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십년동안 연평균 11.8%의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 5.2%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 제주지역의 3차산업 취업자수 증가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유출되는 농업노동력의 흡수이외에, 역외 및 신규진입 노동력의 유입이 심화되고 있는 결과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전체의 부가가치 생산구조로부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변화과정과 그 특징을 검토해 보자. 제주지역 전산업의 부가가치 총생산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이후 전국평균의 성장률에 뒤지지 않는 증가율을 보여 왔다. 1차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전체의 경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미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농업이 1980년 병충해 등에 의한 흉작에 영향을 받아 큰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작부체계의 특성상 1980년도의 피해도 크지 않고 전국의 생산감소추세 속에서도 성장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에는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작목구성의 변화에 힘입어 1981~1986년 사이에는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이 15.4%에 달해 전국평균 3.3%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표 2〉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구조 : 전국, 제주도 (1961~1994)

	전 국				제 주 도			
	전산업 취업자수 (천 명)	산업별 구성비 : %			전산업 취업자수 (천 명)	산업별 구성비 : %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1961	29	39.1	15.5	45.4	0.3	55.6	10.9	33.5
1971	336	27.7	23.0	49.3	3.1	49.3	8.0	42.7
1981	4,604	16.1	32.2	51.6	46.3	34.9	5.3	59.8
1991	20,614	8.0	33.4	66.6	200.2	36.6	5.1	58.3
1993	25,251	7.5	32.0	68.0	235.0	31.5	4.9	63.6

주) 경상가격기준

자료)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분석”, 한국은행제주지점, 1992
 “1993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통계청, 1995

〈표 2〉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구조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전국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3년에는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7.5%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경제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성장과 그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한 제조업분야의 성장을 잘 반영해 주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제주지역은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이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1993년에 약 5%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1993년에도 31.5%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상대적 비중의 크기는 전국평균에 비해 네배를 넘는 규모이다. 그러나 3차

산업의 경우 1993년에도 63.6%로 전국평균의 68%에 못미치고 있어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SOC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제주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SOC 및 서비스업의 발달은 산업의 고도화를 의미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될 경우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산업부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의 3차산업 비중은 결코 특이한 것이 못된다.

이상의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두 지표로부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에 비해 어떠한 점이 다르고,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변화속에서 지역산업의 특성을 내포한 채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결국 제주지역경제는 한국경제 전체에 비해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구조임이 선명히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관광지로 인식되어지는 제주지역경제는 3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편화되어져 있으나,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취업자수나 부가가치 생산비중에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취업구조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국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다다랐고, 경상가격 기준 부가가치 생산비중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3년의 경우 취업자 비중에서 전국평균의 약 2.3배, 부가가치 생산비중에서 약 4.2배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흔히 3차산업으로 분류되는 SOC 및 서비스업의 경우, 제주지역이 전국평균에 비해 특이하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지역내 산업비중의 60%대를 차지하는 3차산업 부문은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고, 향후 경제수준이 증가하면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3. 제주지역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대개 선진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진 산업의 구조조정결과를 보고 우리들은 종종 농업을 “1%산업” 또는 “3%산업”이라 칭한다. 이는 전체 산업구조중 취업자 비중이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1%~3%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농업 역시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현재 7~10%산업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제주의 산업구조는 어떠한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까?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지리적, 자연적 입지여건에 의해 경제적 특수성을 지닌채 1차산업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제주도민은 이들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취하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과연 향후 제주지역의 산업적 생명력과 사회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내의 취업자들은 향후 어떠한 산업에 종사할 것이며, 어떠한 산업으로부터 그들의 소득을 획득하고 경제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에서 특화할 가능성을 지닌 산업을 분류해 보도록 하자.

〈표 3〉 제주지역의 산업중분류 입지계수 : 취업자기준

	1981	1986	1991
농림어업	2.10	2.47	2.24
제조업	0.15	0.13	0.15
SOC 및 기타서비스	0.56	0.77	1.04
전기, 가스, 수도	0.77	1.22	1.07
건설업	0.15	0.43	0.70
도소매, 음식숙박업	0.62	0.44	1.07
운수창고 및 통신업	0.73	0.84	1.53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0.45	0.64	0.86
기타 개인서비스업	0.71	0.84	1.07

출처)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분석”, 한국은행제주지점, 1992, p.11

산업의 경우 1993년에도 63.6%로 전국평균의 68%에 못미치고 있어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SOC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제주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SOC 및 서비스업의 발달은 산업의 고도화를 의미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될 경우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산업부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의 3차산업 비중은 결코 특이한 것이 못된다.

이상의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두 지표로부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에 비해 어떠한 점이 다르고,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변화속에서 지역산업의 특성을 내포한 채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결국 제주지역경제는 한국경제 전체에 비해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구조임이 선명히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관광지로 인식되어지는 제주지역경제는 3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편화되어져 있으나,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취업자수나 부가가치 생산비중에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취업구조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국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다다랐고, 경상가격 기준 부가가치 생산비중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3년의 경우 취업자 비중에서 전국평균의 약 2.3배, 부가가치 생산비중에서 약 4.2배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흔히 3차산업으로 분류되는 SOC 및 서비스업의 경우, 제주지역이 전국평균에 비해 특이하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지역내 산업비중의 60%대를 차지하는 3차산업 부문은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고, 향후 경제수준이 증가하면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3. 제주지역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대개 선진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진 산업의 구조조정결과를 보고 우리들은 종종 농업을 “1%산업” 또는 “3%산업”이라 칭한다. 이는 전체 산업구조중 취업자 비중이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1%~3%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농업 역시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현재 7~10%산업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제주의 산업구조는 어떠한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까?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지리적, 자연적 입지여건에 의해 경제적 특수성을 지닌채 1차산업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제주도민은 이들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취하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과연 향후 제주지역의 산업적 생명력과 사회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내의 취업자들은 향후 어떠한 산업에 종사할 것이며, 어떠한 산업으로부터 그들의 소득을 획득하고 경제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에서 특화할 가능성을 지닌 산업을 분류해 보도록 하자.

〈표 3〉 제주지역의 산업중분류 입지계수 : 취업자기준

	1981	1986	1991
농림어업	2.10	2.47	2.24
제조업	0.15	0.13	0.15
SOC 및 기타서비스	0.56	0.77	1.04
전기, 가스, 수도	0.77	1.22	1.07
건설업	0.15	0.43	0.70
도소매, 음식숙박업	0.62	0.44	1.07
운수창고 및 통신업	0.73	0.84	1.53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0.45	0.64	0.86
기타 개인서비스업	0.71	0.84	1.07

출처)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분석”, 한국은행제주지점, 1992, p.11

우선 산업중분류별 취업자구성비로 추정되는 입지계수 (Locational Quotient)를 통해 제주지역 산업의 특화성향을 검토해 보자. 이 입지계수는 산업구조의 지역적 특수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어느 산업의 LQ가 1보다 크면 전국평균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산업별 취업자 구성이나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지역의 농림어업부문은 특화성향이 매우 강해 LQ가 2를 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0.1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조건이 매우 열악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반면 3차산업의 경우 1986년까지도 LQ가 1이하로 특화성향은 열악하였으나 1990년대에 전국평균과 유사한 1수준으로 성향을 호전시키고 있고, 3차산업중에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1.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는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기준 입지계수를 추정한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기준 계수에서는 농림어업의 LQ가 4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특화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 계수들에서도 <표 3>과 동일하게 2차산업의 취약성이 선명히 드러나 있고, SOC 및 서비스 산업들도 1 전후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특이하게 우위성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부문 중 1.4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부문이 최근 그 성향을 높이고 있다.

〈표 4〉 제주지역의 산업중분류 입지계수 : 부가가치기준

	1981	1986	1991
농림어업	4.47	4.11	4.06
농업	4.61	4.16	4.05
광업	0.60	1.00	0.75
제조업	0.14	0.14	0.14
전기, 가스, 수도	0.57	0.59	0.61
건설업	1.15	1.20	1.15
도소매, 음식숙박업	1.02	1.09	1.1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3	1.08	1.13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0.71	0.76	0.7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3	1.32	1.39

주) 정상가격부가가치기준

자료) "1993년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1995

결국 이러한 검토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점검하여 볼 때 산업구조의 변화가능성과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농림어업 부문에 특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제주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위적 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조정해 갈 경우 특화성향이 높은 산업 중 지역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부문을 우선 결정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이들을 지역내 주력산업으로 삼아, 지역내 취업률을 유지, 확대시키며, 고용소득의 창출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경제운영이라 할 수 있다.

4. 제주의 산업구조변화와 미래사회

-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사회발전의 생명력을 생각하며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지리적, 경제적 입지조건과 자원부존의 특수성에 의해 농림어업 부문에 치중되어져 있고, 이들 산업은 현재 지역내 특화산업으로서 중심적 생산활동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내외적인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 비중을 축소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21세기의 제주지역경제의 중추산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현재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느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앞으로 어느 산업에 주로 종사하며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지역문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해 보았고, 산업별 입지계수를 추정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성장, 발전해 온 제주지역경제는 이제 현 시점에서 정확한 미래인식과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제주지역은 농림어업을 주력산업으로 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이들 부문의 소득창출 능력과 노동고용능력이 미약하다면 이를 중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지역경제의 유지능력이 부족하다면 다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창출보다는 직접적인 소비재나 생산재를 생산하는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역외 의

존적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지역내 경제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시점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들의 경제행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장래 제주지역사회의 상주인구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그로부터 개인소득을 창출하여 그들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경제활동의 수준이 전국 평균 내지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그러한 산업이 없다면 발굴해야 할 것이고, 열악하나마 특화할 산업이 존재한다면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미래의 제주 지역 사회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 건전하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한 제주지역사회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